

중소조선사 대상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

2017. 8. 24

관계부처 합동

I. 추진배경	1
II. 중소 조선사 대상 RG 발급 현황	2
III. 중소 조선사 대상 RG 발급 원활화 방안	3
1. RG 발급 수급 전망	3
2. 중소 조선사 RG 발급 원활화 방안	3
IV. 기대효과	5
참고 1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개요	6
2 정부 신조지원 프로그램	7

I. 추진배경

- 글로벌 경기둔화와 발주 감소에 따른 해운업·조선업 분야 업황 악화 등으로 조선사 대상 RG 발급 관련 애로가 증가
 - 대형·중견조선사는 구조조정 및 수주감소 등의 영향으로 '16년 RG 발급이 급감한 후 '17년에 소폭 증가하는 모습
 - 중소형사는 '16년 이후 이차보전사업, 선박 현대화 사업 등으로 선박발주가 확대되면서 RG 수요와 발급규모도 증가

조선사 규모별 신조선박 RG발급 현황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상반기
대형(조원)	14.1	12.2	12.7	2.8	2.1
중견(조원)	3.7	4.1	2.8	0.6	0.4
중소형(억원)	289	182	280	823	199

- 전반적으로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발주수요가 증가할 중소 조선사를 중심으로 RG 발급 애로가 제기될 전망
 - 대형·중견 조선사는 RG 발급이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주채권은행 등을 중심으로 RG 발급이 이루어지는 상황
 - * (현대중공업) '16.5월 이후 자율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권은행간 RG 발급 분담 (성동조선) '17.7월 수에서 그리스 해운사 발주 석유운반선 5척 관련 RG 발급
 - 중소형사는 시중은행 중심으로 발행되었으나, 조선업 리스크 확대로 중소 조선사 대상 시중은행의 적극적 역할에 한계
 - 특히 경쟁국가 대비 고비용 구조, 대형사 수주감소에 따른 매출급감으로 인한 도산우려 등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
 - *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관련 지역지원 대책에서 RG 발급지원 필요성 제기('17.7월 총리실)
- 향후 중소 조선사의 RG 발급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RG 수급 불균형 문제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
 - 원활한 RG 공급을 통해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II. 중소 조선사 대상 RG 발급 현황

- 최근 5년간 51개 중소 조선사 중 매년 6~10개사('16년 13개사)를 대상으로 평균 394억원 수준의 RG가 발급
 - (발급액) 연간 200억원 수준의 발급이 있는 가운데 정부의 선박신조 수요창출 지원으로 RG 발행도 증가
 - * RG 발급액 추이(억원): ('13)289, ('14)182, ('15)280, ('16)823, ('17상)199
 - 특히, '16년 이후 공공선박 발주관련 RG 발급('16년 542억원)과 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17년 136억원)에 따른 RG발행이 급증
 - (건수) 매년 10여건 이상 발급되고 있으며, '15년 이후 건수 증가와 함께 건당 발급액도 25억원 이상으로 증가
 - * RG 발급건수 추이(건): ('13) 13, ('14) 12, ('15) 11, ('16) 16, ('17상) 7
 - ** 건당 RG 발급액(억원): ('13) 22, ('14) 15, ('15) 25, ('16) 51, ('17상) 28
 - (발급은행) '13년 이후 산·수은 등 정책금융기관 RG 발급은 점차 축소되고, '16년부터는 시중은행 중심으로 발행 증가
 - 산·수은은 대형/수출용 선박건조 대상 자금지원이 증가하고, 기은을 중심으로 중소 조선사 대상 RG 발급 확대
 - * 기은 RG 발급규모(억원): ('13) 1, ('14) 113, ('15) 212, ('16) 170, ('17상) 84
 - 시중은행 RG 발급규모: ('13) 108, ('14) 47, ('15) 6, ('16) 645, ('17상) 85
-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으로 향후 중소 조선사 대상 다양한 신조수요도 있어, RG 수요와 발급규모도 확대될 전망
 - '16~'18년간 소형 관공선 건조물량의 조기발주를 통해 소형 선박 40척 발주 추진(3,800억원 규모, 현재까지 35척 발주)
 - 노후선박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선박펀드·이차보전·보조금 지급사업 등도 중소 조선사의 RG 수요를 유발
 - * (여객선 현대화 펀드) '19년까지 1,000억 지원 / (연안선박 이차보전) '17년~'20년간 77척 건조지원 '17년 예산 76억원 / (보조금 지급) 노후선박 교체시 선가의 10% 지급

III. 중소 조선사 대상 RG 발급 원활화 방안

1 RG 발급 수급 전망

- 예년 RG 발행건수, 규모 등과 신조 프로그램 등을 감안시 향후 연간 15건 이상*, 550억원 이상** RG 발급수요가 있을 전망

* 정책 프로그램이 영향을 준 '16년(16건), '17년(상반기 7건) 실적 등을 감안
 ** 최근 3년간 평균 발급규모(38억원)를 가정하여 산출

- 550억원 시장수요 중 그간 시중은행 공급규모와 여력을 고려할 때 300억원* 수준의 RG는 시장에서 소화될 것으로 예상

* 연평균 RG 발급액은 394억원이나, '16년의 500억원 규모의 1건 제외시 283억원

- 다만 조선업 침체상황 및 중소 조선사의 경영상황 등을 감안할 때, 시중은행의 발급규모 확대에는 한계
- RG 발급수요와 은행의 RG 발급규모를 고려할 때 '20년까지 연 250억원 규모의 RG 발행 초과수요를 예상

2 중소 조선사 RG 발급 원활화 방안

가. 시중은행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산·수은이 대형/수출용 조선사 지원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중소 조선사 RG 발급에는 시중은행의 참여가 불가피
 - 특히, RG 발급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고, 인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부 신조지원 사업에 RG 발급 유도
- RG 발급동향 및 발급애로 등의 논의를 위한 산업부, 금융위, 금감원, 은행 및 중소조선사 간 정례 실무협의체 마련(예. 분기 1회)
 - 특히, RG 발급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해결방안 등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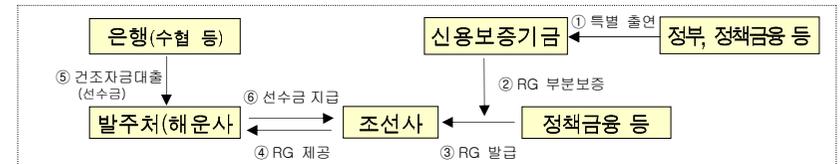
나.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시장보완적 역할 수행

-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리스크를 분담하고 RG 발급을 지원

- 신보에서 정책금융기관 등의 출연재원을 기초로 정책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는 RG에 부분보증(75%) 제공

* 예시) 100억원 규모 선박 건조시, 정책금융기관(산·기은)은 조선사에 80억원 RG 발급, 신보는 산·기은의 RG에 60억원 보증

< 신보 부분보증 구조도 >



- (지원대상) 산은, 기은 등에서 중소 조선사에 발급하는 RG
- (지원기준) 통상적 은행 RG 심사절차와 기준에 따르되,
 - 중소 조선사 업력 등 특성, 이차보전사업 등 지원사업 성격 등을 감안하여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동종·유사선박 건조경험 등 건조능력과 건조가능성을 충분히 고려
- (지원규모) 총 1,000억원(4년간 연 250억원) 규모로 소진시까지 운용
- (재원조성) 정책금융(산은, 기은)·수협과 재정 등이 신보에 특별출연하여 250억원* 재원 조성
 - * 연간 공급 250억원 × 4년 × 보증비율(75%) / 3(보증배수) → 250억원
 - 우선 정책금융·수협 자금(50억원)을 통해 지원하고, 향후 RG 수요 및 재원 소진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이 참여
- (시행시기) 대책 발표 후 즉시 시행 추진

다. 원활한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

- ① 이차보전사업 취급 금융기관의 심사기능 개선(해수부, 금융위)
 - 이차보전사업을 수행하는 수협은 해운사에 대한 대출의 선행 조건인 수주 조선사 RG 발행 요구를 최대한 자제
 - 선사 선정시 저가수주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조선사는 정책금융지원 심사기준(안)을 대출심사에 적용
 - * (예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시 해운사로부터 2개 이상의 조선사 입찰자료 요구
 - 수협의 단독 업무수행 부담완화, 주거은행에 대한 대출기회 제공 등을 위해 이차보전사업을 시중은행으로 취급확대 검토
- ② 중소 조선사 RG 발급 및 기타 금융애로 접수·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추진(산업부, 금감원)
 - * (산업부·금감원) 중소 조선사 금융애로 대응반, (산업부) 1:1 맞춤형 상담체계

IV. 기대효과

- 금번 지원여력 확충으로 총 51개 중소 조선사 중 30여개사가 지원가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건조능력은 충분하지만 일시적 어려움을 겪거나, 유사선박 건조경험 등 건조능력이 있는 조선사를 대상에 최대한 포함
- 경쟁력 있는 중소 해운·조선사 중심의 연안 해운·조선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 해운·조선업 침체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일감확보를 통해 고용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 여건도 조성
 - 기술력 있는 조선사가 건조한 안전한 신조선박 운항을 통한 선박안전 확보 및 해상사고 방지에도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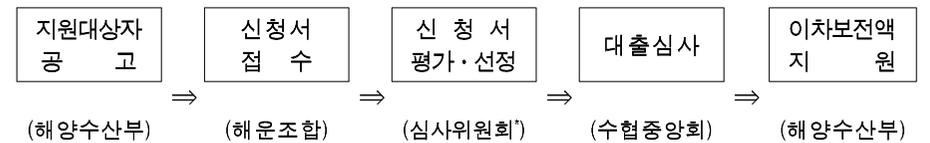
참고 1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 개요

- (목적) 노후된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통해 해상안전 확보 및 여객서비스 질 향상 도모
- (근거) 「해운법」 제38조 내지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호*
 - *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라 선박건조를 위해 국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마련한 경우 그 자금과 사업자금과의 금리차이에 따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 보전
- (신청자격)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사업기간/예산) 2013년~계속 / 7,588백만원('17년)
- (대출기간) 15년(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중 선택)
- (사업내용) 내항여객선 및 화물선 신규 건조시 건조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 2.5%를 정부가 지원

* 취급금융기관 : 수협중앙회, 적용금리 : 신규 COFIX금리(1.66%) + 수협 가산금리 2.11%

□ 사업추진 절차



*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금융기관, 해운물류·조선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 등

- (지원 현황) '13년부터 '17.6월까지 기준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65개사 78척(여객선 29척, 화물선 25척, 유조선 24척) 신조를 지원

* (건조 완료) 45개사 55척(여객선 25척, 화물선 22척, 유조선 8척)
(건조 중) 22개사 23척(여객선 4척, 화물선 3척, 유조선 16척)

1.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16.10월 발표)

- (공공선박 조기발주) 7.5조원을 투입하여 공공선박 63척 이상 조기 발주 추진
 - (군함) 호위함, 고속상륙정 등 신조 군함(6조 6,700억원)
 - (경비정) 대형함정 증강 및 노후함정 대체물량 23척(4,362억원)
 - (기타 관공선) 어업지도선, 공원순찰선 등 관공선 40척(3,800억원)
- (선박펀드) 3.7조원의 펀드를 활용하여 '20년까지 75척 이상 발주 지원
 - (대형 선박)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의 규모를 2.6조원으로 확대 하고, 대상 선종을 확대*하여 대형 컨테이너선 등 단계적 발주 지원
 - * 대상 선종 : (현재) 컨테이너선 → (변경) 벌커, 탱커까지 확대
 - (여객선) 노후 여객선 교체를 위한 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100억원('16.3월 조성)에서 '19년까지 1,000억원으로 확대(5척 지원)

2.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17.7월 발표)

- (노후선박 교체를 통한 신조수요 창출) 노후선박을 조기 폐선 하고, 친환경·고효율 선박으로 대체 신조시 보조금(신조가 대비 약 10%) 지급 검토